

전남도, 문광부 F1대회 부정적 의견 조목조목 반박

## SOC 열악해도 성공 가능성 충분하다

전남도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문광부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 자료에서 전남도는 F1대회의 타당성과, 공공성, 상업성 등 문광부가 문제를 제기한 7개 분야에 대해 일목요연한 표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해하며 F1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히 'F1대회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며 "사업 타당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 SOC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열악한 전남은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문체부의 문제 제기와 전남도의 대응 논리를 정리한다.

◇F1은 재무적 타당성이 높다?=전남도는 국제행사 개최의 타당성 여부는 단순히 수입과 비용을 감안한 재무성이 아닌, 개최효과와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그리고 국가 브랜드 상승 등을 포함한 공익적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 한국에서 개최됐던 초대형 스포츠 행사 중 어떤 것도 재무적 타당성 기준에 따라 유치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무성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수익성 지수가 평균 0.73을 기록하는 등 국제행사로서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F1은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을 요구한다?=전남도는 올림픽의 경우 국비 6천52억 원, 월드컵은 국비 7천164억 원(주정)이 지원됐다는 선례를 제시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교하면 F1 대회는 7년 동안 국비 1천13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국가재정부담이 과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F1대회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F1대회는 공공성이 부족하다?=전남도는 F1이 다른 대회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갈수록 상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대회의 상업성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행사의 공공성은 행사 개최로 인한 국가 흥보효과와 국민경제 파급효과, 관광산업 진흥 효과, 지역발전 효과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전남도는 2005년 8월 당시 정부로부터 F1대회가 포함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승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F1대회를 유치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은 적다?=F1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고정 마니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대회로서, 모터 스포츠가 우리보다

도 대회 개최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7년 미테랑 대통령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파리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마니끄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곳에 F1유치를 결정했으며, 독일 역시 대도시인 뮌헨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낙후지역 '뉘르브링크'에 전략적으로 F1을 유치한 사례를 제

###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 요구

공공성이 부족하다

F1지원법은 사후입법?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은 적다

여건이 열악, 위험요소 많다

국내에는 F1드라이버가 없다

### ▶ 올림픽·월드컵 재정 비하면 과도 안해

▶ 국제대회 상업하는 세계적 추세

▶ 모든 국제행사는 유치된 뒤에 입법

▶ 中·말레이시아·싱가폴 등도 성공 개최

▶ 佛 '마니끄르'도 소도시지만 유치

▶ 17개 개최국 중 드라이버 보유국 8개 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F1대회 역시 막대한 공공 파급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만큼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또한, 세계적으로 F1대회를 개최하는 나리에서는 F1대회를 국가행사로 인식, 국가가 직접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F1지원법은 사후입법?=모든 국제행사 지원법은 사후입법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어떤 대회든 일단 유치된 뒤에야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후입법이라는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F1대회 역시 막대한 공공 파급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만큼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또한, 세계적으로 F1대회를 개최하는 나리에서는 F1대회를 국가행사로 인식, 국가가 직접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애프터마켓으로 불리는 자동차 튜닝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F1성공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여건이 열악, 위험요소 많다?=전남도는 F1대회의 특성상 대도시권이 아니어

시했다.

◇국내에는 F1드라이버(운전자)가 없다?=현재 F1대회가 열리는 17개국 가운데 자국 출신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 뿐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말레이시아, 바레인, 터키, 모나코, 캐나다, 헝가리, 벨기에, 싱가폴, 중국은 자국 드라이버가 없어도 F1대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2011년을 목표로 한국 국적의 F1드라이버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F1 대회, 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비교

구분	2010 F1코리안 그랑프리	올림픽	2002 월드컵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1 대구 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첨가규모	10개팀 17,500여명	202개국 (2004 아제르바이잔)	32개국 14,600여명	45개국 15,000여명	212개국 7,000여명
외국인 관람객	연인원 31만	연인원 40만 >1992년 러브로드나 >110만 (1996 아틀란티스)	연인원 35만명 (개임당 2~3만명)	연인원 35만명 (2002 부산시민경기장 -주정)	최소 4,000명 최대 11만명
경제 효과					
투입 비용	7,330억원 (국비 1,130억원)	22,215억원 (국비 5,885억원)	2조 3,802억원 (2002 한일 월드컵 (국비 7,164억원 -주정))	6조 8,054억원 (국비 미정)	2조 4,011억원 (국비 미정)
생산 유발	1조 8,055억원	4조 7,504억원	11조 4,797억원	12조 9,328억원	5조 5,876억원
부기 가치	8,604억원	1조 8,462억원	5조 3,357억원	5조 5,575억원	2조 3,406억원
고용 유발	17,994명	336,000명	350,000명	268,500명	62,841명

\*투입비용은 운영비를 제외한 비용임  
(자료: 전남도청)



전남도 F1대회 주경기장 조감도

2009년 편입학 성공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대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 12월 1일 첫진도

www.kimyoung.co.kr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내 총 행정고시학원

●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국비무료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